KISEP Review Article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제14권 제2호 2003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14 : 139~149

한국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 과거 · 현재 · 미래 -

KOR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A REVIEW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

홍 강 의*†

Kang-E M. Hong, M.D.*†

연구목적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발전 과정(과거)을 돌아보고,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주요과제를 살펴 보고자함.

연구방법 : 학회기록, 관련논문, 원로들과의 개인통신, 저자개인기록과 참여경험을 토대로 함.

결 과 : 한국소아정신과의 공식출범은 1979년 서울대학교병원외래에 소아정신과클리닉의 개설과, 다음해 동대학병원에 소아정신분과 설립으로 볼 수 있음. 대한소아, 청소년정신의학회는 1983년 한국소아정신의학연구회로 시작하여 1986년 동학회가 공식 창립되었음. 창립후 지난 20년간 학회는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하였는데 그 원동력은 소아청소년정신과 전임의 수련프로그람이 주요대학병원(현재 총 7개)에 생겼고, 1994년부터 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발간, 1996년 대한소아청소년정신과 수련심사위원회의 발족과 역할수행에서 찾을 수 있음.

현재 한국에 77명의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분과전문의와 48명의 부가수련중인 전문의, 18명의 전임의가 수련 중에 있음. 현재 한국소아청소년정신과는 국내적으로는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고 인접전문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소아청소년학회의 창립과 학술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및 국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등 국제무대로 역할을 확대 중임.

결 론 : 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은 지난 20년간 성공적인 발전을 해왔고, 의학계와 일반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병원 및 정신질환 관련기관에서의 자문, 연결, 학교자문서비스에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었고, 특히 가족체계의 변화와 붕괴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 분명함으로 앞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역할은 중차대함.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낙후된 소아청소년정신과서비스 개발과 발전에도 기여하여야할 사명이 있는 것으로 제안함.

중심 단어 : 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 · 수련프로그램 · 분과전문의.

서 론

한국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가 공식출범한지(1983년) 벌써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짧은 세월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짧은 시간에 한국소아정신과의 발전상을 살펴보면 매우 생산적이었고, 눈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교신저자 : 홍강의, 110 - 744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정신과
전화 : (02) 760 - 3647 · 전송 : (02) 744 - 7241 · E - mail : kmhong@snu.ac.kr

신 것이었다. 정말 축하받을 만한 20주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소아정신과가 매우 젊고, 생긴지 얼마 안 되는 학문분야로만 생각했는데 미국소아청소년정신과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겨우 30여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렇게 보면 한국소아정신과도 세계의 어느 나라의 정신과와도 비견할 만한 역사와 학문적, 임상적 서비스 개발에 성공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참으로 축하 받을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은 서비스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소아정신과 세부전문의 수련프로그램이 곳곳에 생겨나, 현재 120여명의 세부전문의가 배출되었고 매해 15명씩의 소전임의를 수련하고 있는 것은 어떤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도 많은 소아정신과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 임상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아정신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용도도 매우 높아서 이제 소아정신과는 성년기, 증흥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활동 이상의 목표설정이 필요한 즉 이제는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지향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소아정신과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학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학회의 미래와 과제를 짚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본다. 이런 뜻있는 20주년 기념행사에, 이러한 제목으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은 저 개인으로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한국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의 과거

어떤 중요한 사건도 무에서 시작할 수 없으며 소아정신과가 시작하기 전 소아정신과의 탄생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 있게 마련이다. 소아정신과의 발전을 여명기, 창립기, 발전기, 중흥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여명기

광복후부터 한국동란을 거쳐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를 소아정신과의 여명기라고 볼 수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광복해인 1945년 **서울소년심판소**에서 소년범죄자를 재판할 때 촉탁제도를 채택하여 정신과 의사를 촉탁으로 위임하고 그 의견을 물어서 재판에 참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경성대학교 의학부 신경정신과학교실 유석진 교수께서 촉탁으로서 활약을 하셨고, 미군법률고문관이었던 Lyman이 자문관 역할을 함으로써 소년범죄 재판에 정신의학적 의견이 중요함이 인정된 바 있다. 또한 **남산소년구호상당소**가 설치되었는데 이때 심리학자인 성백선, 사회사업가 권기준이 관여하여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50년 한국동란당시 미군의학은 한국의학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신의학도 예외가 아니어서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역동정신의학, 정신분석 등이 소개되었고, 이때 발달이론과 소아정신의학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소아정신과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동란 종료후 상당수의 의학도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였고 정신과도 예외가 아니어서 원로정신과의사들이 미국에 가서 수련을 받아 당시에 유행하였던 정신분석, 역동정신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1958년 **서울아동상담소**가 개소되었는데 이 또한 당시에 미국에 유행하던 아동상담소를 우리나라에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 이때 소장은 권순영 판사(서울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장, 한국아동복지연구회 회장)가 맡았으며, 전문위원으로는 정신의학에선 유석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 진성기(국립정신병원장), 정신의학자로는 오석환, 이병윤, 노동두 등이, 심리학에서 성백선(고려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교육학 카운슬러 정희경, 사회사업 허상락 등 다방면의학자들이 아동상담소 활동에 참여하였다. 활동의 내용도 매우 인상적으로, 매주1회 증례토론회나 집담회를 가진 바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된 것으로 보이며 팀접근도 시도되었다. 현재 놀이치료실에 해당하는 유희실도 함께 설치되었고, 20세까지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담하였다. 상당내용도 매우 다양하여서 지능-정서발육 상담, 비정상행동(예, 공포불안, 무단가출, 반항, 의사표시곤란, 친구-가족 등 대인관계 곤란) 등을 다루었으며, 반사회적행동, 학력 증진, 진학문제 등과 일반의사가 발견할 수 없는 신체 증후군을 다루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에 정신의학의 첫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석환의 ‘ 정신박약에서 보는 정신분열 증상 ’, 노동두의 ‘ School phobia의 정신요법-1예 보고 ’가 신경정신의학 1권 1호(1962)년에 발표되었다. 신경정신의학 2권(1963년)에는 소아 및 청

소년정신의학에 관한 특집을 실을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었다.

2. 현대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시작

아마도 소아정신의학 수련을 처음으로 받으신 분은 1950년대말~1960년대 초에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 유학을 하신 오석환 선생님으로 볼 수 있다. 오석환 선생님은 콜로라도 대학에서 정신과 및 소아정신과 수련을 받으셨는데 당시 소아정신과창시자의 한분인 유명한 Spitz의 가름침도 전수하신 바 있다. 1967년 노동두 선생님이 미국 미네소타대학에 1년간 소아정신과수련을 한바 있다. 당시 자폐증으로 유명한 Kanner가 동 대학에서 안식년을 취하고 있었다. 귀국하여 카톨릭의과대학 성모병원에서 소아정신과를 개설하고 놀이요법실을 만들고 환자를 보았으며 정신과와 소아정신과의 전공의에게 소아정신의학 강의를 한 바 있다. 노동두 선생은 1986년에 초대 소아청소년정신과 학회장을 지낸 바 있고 2002년에 별세하였다. 1969년 미국에서 소아정신과 정규수련(2년 이상 소아정신과 전임의 과정)을 마치신 이규원이 귀국하여 카톨릭의대 성모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에 근무하면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하였으며 이때 작고하신 김행숙과 박성숙이 소아정신과 진료지도를 받은 바 있다. 1970년도 후반에는 진성태가 미국에서 수련을 받고 국립 서울정신병원에 근무한 바 있고, 소아과 이근이 미국 뉴욕주립정신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수련을 받고 돌아와 이화대학 소아과 내에서 발달장애와 기타 소아정신과 환자를 한동안 진료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 1970년대에 청소년 연구가 매우 활발하였는데 예를 들면 카톨릭의대에 한상엽은 청소년비행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논문을 썼고, 중앙대의 민병근, 이길홍이 정상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주로 사회 심리학적 연구를 광범위하게 시행 한 바 있다.

3. 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창립과 발전

이상과 같이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은 광복이후 조금씩 소개되었고 상당수 정신과 의사가 관심을 가지고 유학한 바 있으며 자격을 갖춘 소아정신과 의사가 2~3년간 한국에 나와 진료를 베푼 기록이 있지만 좀더 체계적이고 정식 소아정신과 진료가 시작된 것은 1979년 홍강의가 와싱톤대학에서 소아수련을 마치고 미국소아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하고, 미네소타대학에서 소아정신과 조교수로 6년간 봉직하다가 귀국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아정신과 클리닉**을 정식으로 개설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1980년에 **소아청소년 정신분과**를 개설해 주었고 분과(Division)로 독립시켰다. 그 이듬해(1981년) **소아정신과 전임의**(fellowship)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매년 한 두명으로 시작하여, 그 이후 1년에 4명의 소아정신과 세부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전임의는 김행숙, 박성숙, 곽영숙, 안동현 순으로 수련을 마쳤는데, 형편상 2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1년씩의 전임의 수련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소아정신과 환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경험과 1 : 1의 지도감독 supervision을 받을 수 있었다. 소아정신 분과내에 자폐아동 **발달장애 주간치료소**도 만들어졌고(1983년), 서울대학교병원에 어린이 병원이 따로 개원됨으로써(1985) 독립된 **소아정신과 입원병동**이 설치되어서 많은 환자를 매우 심도있게 평가 · 치료할 수 있었고 소아정신과 전임의들에게 심도잇는 수련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소아정신과 수련 프로그램의 특징중의 하나는 처음부터 타대학 출신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전임의의 반 이상은 서울대학이 아닌 타대학 출신이었다.

1980년도 초반에 이혜련이 Illinois대학에서 소아정신과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으며, 중반에 조수철이 Yale 아동연구소에서 연수하고 돌와 왔고, 이후에 최보문, 송동호, 소은희, 김영신 등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미국 대학병원 등에 연수하고 돌아 옴으로써 경험있는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집단이 조성되고 팽창되었다.

1983년에는 **한국소아정신과연구회**가 구성되고 매월 월례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증례보고나 문헌조사가 실시되었고 특징적으로 다학제적 모임이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함으로써 성황을 이루었고 소아정신의학 뿐 아니라 타전문분야의 소아정신과적 아동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진작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86년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식으로 출범하였는데, 초대회장으로 작고하신 노동두선생님을 모셨고, 2대 홍강의, 3대 김행숙, 4대 이길홍, 5대 박성숙, 6대 김승태, 홍성도, 7대 조수철, 8대 노경선, 그리고 현재 안동현으로 이어지며 차기회장으로 이영식 선생이

지명되고 있다. 1990년대에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학회 학술지**가 창간되었으며 연2회 출간되었고, 초대 편집인으로 홍강의, 2대 조수철, 3대 송동호가 맡고 있고 그동안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와 논문발표의 장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 학회 내외에서 점차 소아정신과에 대한 관심과 수련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대한소아청소년정신과 수련심사위원회**가 발족되어(1996) 한국소아청소년 **정신분과 전문의 제도**가 수립되었다. 이는 정부주도의 인허가 단체가 아니고 순수히 학회차원에서 자발적인 평가 인정기관으로 발족되었으며 당시 삼성병원의 근무하시던 김승태, 홍강의가 초대 공동위원장으로 활약하였고 이후 홍강의, 노경선위원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4. 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확장과 중흥

1990년 중반에 들어 미국에서 정식 소아정신과 수련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수련대학병원에서 활약한 바 있는 김승태, 홍성도, 노경선 등이 귀국하여 이분들이 서울삼성병원과 강북삼성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소아정신분과를 설립하였으며 소아정신과 전임의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련한 안동현, 이영식 등도 각각 한양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에, 또한 송동호, 김영신이 보험공단 일산병원, 평촌 한림대학병원에 신의진이 연세대학 병원에 소아정신과 수련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그야말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은 중흥기를 맞게 되었으며, 많은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이 전국적으로 20여개 달하는 대학에 소아정신과 진료를 개설하게 되었다. 현재(2003년) 총 7개의 수련프로그램이 활동하고 있고,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77명, 부가 수련중인 전문의(1년 정규수련을 마치고 학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더 수련중인 전문의) 48명이며, 올해(2003년) 수련중인 전임의는 18명에 달한다. 이렇게 보면 지난 10년사이에 한국의 소아정신과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서비스의 내용과 질은 미국 못지않게 건실하고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5. 국제무대로의 신장

한국소아정신과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관심사는 동양권에서의 소아정신과 발전에도 갖게 되었다. 1994년에 국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IACAPAP) 13차 회의가 교토에서 열렸는데 이때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대거 참여한 바 있으며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후 홍강의 등 우리나라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아시아권에서의 학회 필요성을 느끼고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등과 협조하여 아시아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ASCAPAP)를 창립하기에 이르러 1996년 창립총회 및 제1회 Congress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였고 Nishizono 교수를 창립회장으로 모셨으며 홍강의가 차기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때 창립대회에 한국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가 20여명 대거 참석하였고 1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회 창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드디어 1999년 아시아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제2차 Congress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는데 국내에서 200여명 국외에서 100명에 참석하였고 당시에 현 국제소아청소년학회 장인 Remschmidt박사를 초청하여 기조강연을 들었으며 홍강의가 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2차 Congress를 개최하기 위하여 많은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심적, 물적 기여가 대단하였는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제회의에 걸맞는 성공적인 회의를 마칠수 있었다. 이때,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긴 거의 1억에 해당하는 기금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국제학술기금**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쾌거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Jerusalem Congress’에 한국에서 상당수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중동의 불안정한 정치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마찬가지로 2002년 New Dehli에서 개최될 15차 국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IACAPAP)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으로 인하여 취소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던 우리나라 회원들의 논문발표 등이 좌절되었다. 올해 아시아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ASCAPAP) 제3차 회의가 대만에서 3대 회장 Soong교수의 지도하에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실은 5월에 열리려는 계획이었으나 SARS로 인하여 11월로 연기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30여명이 참석하였고, 2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명의 좌장 등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외에 홍강의는 지난 5년간 국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IACAPAP)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WPA의 Presidential Program on ‘Global Child Mental Health’의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녀정신의학회의 정식회원은

아니지만 미국의 김원정, 유승일 선생 등은 미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김원정 선생은 미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편집위원 Lancet 잡지의 reviewer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우리 회원 매년 20여명씩 참석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 5, 6년간 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은 해외로 뻗어나갔고 많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발전상을 알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6. 인접분야의 성장과 발달

이상에서 우리소아정신의학회의 지난 20여년간의 발달을 살펴보았는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 뿐만 아니라 여러 인접분야학회도 창립되고 획기적인 발전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소아정신과 의사가 주동이 되어 또는 크게 뒷받침되어 창립된 학회도 많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1989년) 다학제 전문가들의 의기가 투합되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초대와 2대회장을 홍강의가 한 바 있으며, 안동현도 관여하였고 이후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바 있다. 올해로서 14년되는 아동학대예방협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전국에 아동학대의 현황과 실태를 알리고 국민과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드디어 1999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에 예방과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공헌한 바 있다.

한국자폐학회가 1993년에 창립되었는데 이때에도 소아정신과 의사와 특수교육, 아동심리, 아동학 등 다학제적 학회로 시작하였고 초대회장에 홍강의(소아정신), 2대회장 김태련(심리), 3대 김승국(특수교육) 등이 역대회장으로 활약하였으며 자폐장애의 올바를 이해와 치료 및 교육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발표와 교육, 훈련 등을 선도하고 있다.

소아정신간호 : 소아정신과 임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아정신간호도 활발하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서울대학교병원 발달장애아 주간치료실, 소아정신과병동을 등을 중심으로 임숙빈 등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소아정신간호분야을 개척해 왔다.

소아임상심리 : 소아정신과 임상이 활발하게 확대되면서 자연히 심리검사나 행동평가, 치료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소아정신과가 그 내용상 항상 다학제적 팀접근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으로 소아임상심리가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 내에 소아임상심리 수련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신민섭, 오경자 등이 그동안 기여한바 크며 아동청소년심리치료연구회가 2001년 발족한 바 있다.

소아정신 의료사회사업도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의 박혜영, 김경자 등을 주축으로 발전하였으며 가족조사, 방문, 부부치료, 가족치료, 타 기관과의 연계 등 중요한 의료사회사업적 접근을 개발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해온 바 있으며 1988년 장애복지종합대책이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되었고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자폐성장애가 포함되었다. 지난 20년간 특수교육은 매우 두드러진 발전을 이룩한 바 있으며 단국대, 이대, 대구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특수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특수학급과 특수학교가 개설되고 통합교육도 시도됨으로써 다양한 접근이 발전되고 많은 장애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언어치료도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하였고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언어치료사를 찾는 경향이 있다.

이상과 같이 지난 20년간 인접전문분야도 우리만큼이나 괄목할 발전을 해왔으며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을 개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현황과 이슈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왔고 중흥기에 있으며, 속된 표현으로 매우 인기 좋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은 우리가 일찍이 분과전임의 수련제도를 도입한 것이 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 발전의 원동력을 이루었다. 여기에다 분과 전문의제도를 자체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견인차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개 대학 수련병원이 적어도 1~4명의 소아정신과 전임의를 훈련시키고 있고, 20여개의 대학과 종합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제 주요도시에는 상당수의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개원을 함으로써 소아정신과 환자가 진

료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학회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1. 전공세분화문제

소아정신과가 정식 명칭이 소아청소년정신과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환자의 대부분은 소아정신과 의사보다는 성인정신과 의사나 청소년 상담, 기타 청소년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에서 일반정신과 의사 특히 청소년에게 관심있는 일반의사에게 문호를 개방하였으나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1997년 이시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신의학회**가 창립되었다. 창립 동기는 소아청소년정신의학에서 청소년문제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고, 일반정신과 전문의 중 청소년을 보는 분이 많으며,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과 압력을 가짐으로써, 정신과 의사가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정신질환을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접분야가 청소년문제를 독차지 하는 영토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좀더 청소년 정신문제를 연구하고 치료활동에 대한 정보를 나눌 목적으로 청소년정신의학회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기대보다 일반정신과 전문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역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들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과연 청소년정신의학회가 따로 존재하여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아정신의학연구회**가 발족되었는데 유아기정신질환의 치료와 연구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의 당연한 역할이며 연구회로서의 존재가치는 충분히 있으나 유아정신의학회가 따로 독립되어야 할지는 의문이다.

2. 소아정신과 전문의 역할과 정체성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많아지면서 그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는 병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상당수는 개원하지만 정신장애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분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간에 상호존경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치료적인 접근에서 일부에서는 생물학적인 치료, 일부에서는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가족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아정신과 질환의 본질과, 발달하고 있는 아동의 욕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소아정신과의사는 항상 생물-심리-사회적 요소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발달학적인 접근**을 모색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현재 큰 이슈중의 하나는 소아정신과 전문가 대부분이 환자에게 직접 치료서비스하는데 관심이 많고, 종합병원에서의 자문 · 연결정신과 서비스나, 청소년 문제의 사회적인 이슈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정신질환자만 볼 것인지 사회적 문제 등에 손을 뻗쳐 역할을 확대할 것인지 우리들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진료실에서의 국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좀더 타과의 협조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문사업, 교육사업 등에 관여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심리사회적인 활동과 운동을 주로 다루는 ‘ 소아사회정신과의사 ’도 나타나야 되리라고 본다. 소아정신과의 초기발달에 있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환자 진료에만 시간을 뺏기다 보니깐 학교나 보건소 또는 기타 아동정신건강 기관에 자문이나 기관 내 진료 서비스를 해 주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 또는 **시간제 전문의사**로 참여하는 소아정신과 의사의 수도 늘어나야 될 것이다. 그동안 고복자가 서울시 학교 건강센터에서 꾸준히 학교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어 왔고 홍성도가 주동이 되어 학교 정신과 자문을 개척하였는데 앞으로 학교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문 활동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필수적인 임상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인접분야와의 관계설정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앞서 지적한대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접분야도 지난 2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시작과는 달리 전문적 다학제적 팀접근태도는 점차 쇠퇴해가고 각 인접분야는 제각각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독립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또 분야마다 특정 치료법을 내세워 독자적으로 ‘ 환자를 치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사업가는 가족치료 전문가라고 주장하며 심리 · 교육분야에서는 인지행동치료, 아동학에서는 놀이치료, 특수교육에서는 언어치료 등 특정 치료가 마치 그들만의 치료방법인양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타 전문가들과의 협조적이고 통합적인 팀접근보다는 각각의 정체성을 내세워 특정한 치료를 고집하고 있고 그 특정한 치

료가 장애나 정신질환의 전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최근의 음악치료, 미술치료, 댄스치료 등이 소개되고 선전 되고 있는데 그 하나만으로 자폐증을 치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중에게 선전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전문가 춘추전국시대에 있으며 각종 합법적, 불법적 자격증이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와 그 가족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혼란에 빠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전문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전문가 shopping, 현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실제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만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실적 문제점의 하나는 의사는 의료보험의 강력한 통제하에 치료비가 낮게 책정되는 반면에 비의사 전문가들은 ‘ 교육비 ’‘ 상담비 ’의 명목으로 더 많이 매겨지는 수가 있어서 이러한 실제 서비스상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학회 차원에서 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학회와 인접분야 학회들이 각각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할을 모색하였고 전문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간행동의 복잡성과 아동의 발달욕구가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차원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인접분야와의 재접근, 공동 목표 설정, 통합적인 접근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4. 청소년문제에 관한 입장

우리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비행, 자살, 약물남용 등 많은 문제가 청소년과 부모를 괴롭히고 있고 정부는 골치를 앓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 문제는 주로 비의사전문가들에 의하여 다루어지고있고 다분히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면 청소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부시책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정책이 부처마다 각각이여서 문화관광부는 ‘ 육성 ’을 강조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 보호 ’적인 차원에서 환경의 개선과 처단 등을 내세우며, 보건복지부는 ‘ 보육 ’과 정신질환 ‘ 치료 ’에 집중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적인 ‘ 교육 ’에만 치중하여 실제 전인적인 교육은 표방뿐이고 정서함양이나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등 대인관계에 필요한 정신건강 이슈는 외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문제의 문제성을 직시하고 강력한 통합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 청이나 청소년 부 내지는 대통령 직속 **아동청소년 위원회** 같은 것이 생김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시책마련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효율적인 상호협조적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청소년비행이나 청소년문제의 기저에는 정신질환이 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적 치료나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자신의 문제다. 그동안 우리는 청소년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기피내지 경시하였다. 앞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도 적극적으로 청소년 문제 연구와 치료법 개발, 서비스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문제에 진정한 도우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의 미래와 과제

이상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과거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헤쳐 나가야 될 미래와 그 과제가 무엇인가를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임상활동의 시야 확장

우리는 몇몇 소아정신질환치료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임상활동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별로 다루지 않는 기타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 · 행동적 문제에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다. 원인적으로 사회병리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하던 문제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에게 오는 환자만을 진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기관, 정신질환 관련기관 등, 지역사회로 나아가 부모교육이나 기타 예방교육 활동,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자문, 학교자문 등 좀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자문활동을 극대화하고, 필요하면 아동기관이나 정신장애 관련기관에 1~2일의 part - time직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시간의 일부를 그 기관에 직접 서비스에 쓸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문제가 다루기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귀찮은 것일지라도 청소년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치료적 개입을 연구

개발 하여야 할 것이다.

2. 소아정신과 환자 증가 예상

우리나라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지난 30~40년 동안, 서양에서 300~400년에 걸렸던 근대화 작업이 압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양육방법이 혼동되고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임신, 원하지 않는 아이가 증가되었고 양육방법을 배울만한 기회가 없음으로써 양육의 회피, 거절이 횡행하며 이로 인해 아동학대와 방임, 반응성 애착장애가 증가하고 있다. 훈육도 부적절하여 과잉통제를 하거나 과잉보호, 체벌을 과잉사용함으로써 행동통제와 자율성 개발에도 문제가 있다. 성혁명 이라 한만큼 성행동과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였고 여성의 직업관과 남녀평등사상은 당연시되어 아동들의 성개념과 성역할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자녀수는 급감하였으며, 이혼이 급증됨에 따라 가정 붕괴가 가속되고 있다. 소아정신과질환, 정서 · 행동의 문제는 틀림없이 증가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 각종 전문가들은 많아지고 각각 자신들의 서비스가 해결책임을 주장함으로써 부모들과 환자들은 혼돈을 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특유한 과잉교육열과 교육제도의 모순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결과 소아정신질환의 위험도는 계속 높아 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크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스런 공존상태를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동양적인 배경에 서구적인 가치관의 도입, 상호의존관계적 정(情)의 사회에서 성취위주 무한경쟁사회로의 변화,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이고 평등 주의적 민주사회로의 전환, 내적인 가치추구의 실종과 물질만능, 향락지상주의의 주도 등 여러 가치관이 공존하는 변화와 혼돈상황에서 소아정신과 환자는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급격한 정보화, 산업화, 최첨단 기술사회로의 도약은 생활여건은 호전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고 정신장애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가치관, 심리행동규범의 불안정과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며 그만큼 정신장애의 위험도는 높아지고 우리가 할 일은 많아지고 중요할 것이다.

3. 가족기능의 약화와 역기능에 대한 능동적 대처

우리나라 이혼율은 10년 전에 비하여 10배나 뛰었고 인구 천명당 3.2건이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적인 독립능력과 밀접히 관계있다. 부부관계가 재정립되고 있으며 인내심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 보다는 개인주의적 사고와 자기주장이 가족체계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혼, 재혼 가정이 늘어남으로써 아동의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도는 높아지는데,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이혼이 부부권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은 정신건강의 요람이며 아동이나 가족 구성원이 가장 확실한 애정공급을 받음으로써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가족붕괴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증가의 가장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붕괴를 최소화하면서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을 최대한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우리 정신과 의사의 또 하나의 과제이며 가족치료나 체계적인 접근은 소아정신과 수련에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환자와 가족의 권익보호와 적절한 정신건강도움 지침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문가 춘추전국시대에 있으며 다양한, 무수한 전문가들이 환자와 가족을 유혹한다고도 할 수 있으며 본의 아니게 혼란과 방황 그리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환자와 가족이 적절한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도움 받을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는가 하는 안내와 지침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소아정신과 의사야말로 다학제적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임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팀에서 정신과 전문의는 team leader ; coordinator ; integrator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역할수행에 있어서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발달학적 접근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접분야전문가와 같이 일할 때 그들의 역할과 정체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소아정신과 의사는 또한 아동과 가정의 가장 훌륭한 대변인이자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정부, 사회정책개발에 적극참여

의사들은 자고로 자신의 진료활동에 몰두하고 만족함

으로써 정부나 사회정책개발에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모자보건, 아동복지, 청소년정책, 장애인복지, 정신보건정책 등 정부정책과 그 활동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과 예방, 정신질환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도와주는 것은 우리 소아정신과 의사의 당연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체계에 있어서 수가에 대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정신과라는 특성이 보험체계에서 고려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6. 체계적이고 엄격한 연구풍토 진작

현재 우리나라는 임상활동은 수준급 이상으로 활발하며 다른 나라에 뒤지지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연구활동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고 임상적인 연구, 기술적이고(descriptive) 단순통계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과학적인 수준에 미달되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심층연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생물학적 연구로 급선회함으로써 정신사회적인 연구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과학적이고 통제가 잘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성행되어 우리나라 학술지뿐 아니라 외국의 유수한 학술지에도 실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고 새롭게 입문하는 젊은 소아정신과 의사에 기대가 크다.

7. 국제무대에서 지도자의 역할

우리나라가 소아정신과의 발전이 괄목할 만하고 활발한 상태이지만 이제는 좀더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도자역할을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아시아지역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ASCAPAP)에서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예를 들어서 안동현이 아시아소아정신과의학회 부회장, 홍성도가 재무, 송동호가 부총무), 아시아지역에서뿐 아니라 미국이나 기타 국제소아정신과학회에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제소아정신과학회에서는 홍강의가 부총무이자 이사로서 활약 중이지만 다른 우리나라 지도급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소아정신과 발전이 소아정신 전임의 수련프로그램을 수립함으로써 가능해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시아지역에 소아정신과 발전을 위하여 **아시아지역 소아정신과전문의 및 소아정신건강전문가 수련소**(Asian Regional Training Center for Child Psychiatrists and Child Mental Health Professionals)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세계화 · 지구화로 인한 소아정신건강문제에 대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구화의 와중에 있다. 인간의 행동의 반경이 무한 확대되고 있고 IT, BT 등 첨단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전통과 고유문화의 실종 및 가치관의 평준화 내지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문화와 문화의 충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화의 융화 내지 공존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무엇이 한국적이고 무엇이 아시아적이며 무엇이 범지구적인 가치관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가 가치관이 공존하는 데서 오는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며, 어떻게 공존하고 어떤 것을 새롭게 추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범지구적인 문화가 탄생되어야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점과 함께,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만을 찾는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범지구적 시민의식 Global Citizenship의 창출이 미리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약진의 와중에 우리 인간의 정서 및 행동의 불안정과 적응의 위험성은 증가되며 따라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외국과의 공동연구, 공동개발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9. 교과서 발간

마지막으로, 20여년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 소아정신과 교과서가 제대로 출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위 ‘ 대부 ’‘ 개척자 ’라고 호칭되는 본 저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편집중인 **소아정신의학교과서**는 곧 출판되겠지만 앞으로 **청소년정신의학, 유아정신의학** 교과서가 조속히 발간되기를 기원한다. 더 이상 한사람에 의한 교과서 출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많은 우리 회원들이 참여하여 세부 전공한 분야를 맡아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한 교과서가 하루 빨리 출

간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이상 우리나라의 소아정신과 발전사를 중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보았으며 현재 우리나라 소아정신과의 현황과 이슈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두어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안하여 보았다. 우리 소아정신과는 지난 2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특히 아시아지역에서는 돋보이는 발전단계에 와있다. 물론 더 많은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여 특히 아시아지역의 소아정신과 발전에 기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은 개인 진료실이나 병원에서의 단순진료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정신건강 이슈에 도전하고 지역사회와 정부기관에 참여함으로써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부모교육뿐만 아니라, 젊은 부모들을 위한 양육과 훈육의 방법, 급증하는 이혼에 대한 대처 그리고 이혼자녀 재혼가정, 외부모 가정자녀들에 대한 예방적인 서비스, 유치원이나 학교에 대한 정신과 자문과 예방적 교육, 청소년문제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참여와 대정부 정책결정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임상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준 높은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외국에서 개발된, 외국연구에서 나타난 치료방법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에서 잘 진행된 연구에 바탕을 둔 치료 및 예방기법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개발된 가장 한국적, 동양적 치료방법은 아마도 범세계적 치료기법으로 각광 받을 날이 오리라 기대 해 본다.

■ **주 서** : 소아정신의학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다보니 일부 기여자들을 실명 거론하게 되었고, 특히 본 필자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되어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 필자는 필자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했어야할 역할을 하게 된 행운아임을 감사드리고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또한 본 논문의 내용은 주로 필자 개인의 기록과 기억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혹이나 마땅히 거론되어야할 분들이 빠졌거나 내용상의 미흡함과 오류가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ABSTRACT —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14 : 139~149, 2003*

KOR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A REVIEW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

Kang-E M. Hong, M.D.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Objectives : To review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to propose the future tasks at this 20th anniversary of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Methods : Records and publications of Korean Academy, personal communications with senior members of the Academy, the author's recollections and memoirs.

Results : Korean Child Psychiatry started with opening Child Psychiatry Clini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1979 and establishing 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t the same hospital in 1980. A Child Psychiatry Study Group was formed in 1983 and it transformed into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in 1986. In the past 20 years, Kor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made an impressive progress 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 as well as to the establishment of child mental health service. There are 77 board-certified and 48 board-eligible child psychiatrists, and 18 child psychiatry fellows are in training as of 2003.

Main forces of this successful introduction of child psychiatry are 1) 7 child psychiatry training centers at major university hospitals, 2) publication of Korea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in 1990, 3) the establishment child psychiatry board certification system in 1996. Korean child psychiatry has extended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child psychiatry and took leadership in establishing Asian Societ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Allied Professions(ASCAPAP).

Conclusion : Korean child psychiatry has achieved a remarkable progress for the past 20 years and is currently producing 15 or more child psychiatry each year. However, there are needs of more active involvements in adolescent problems, more active consultation-liaison services at general hospitals as well as community mental health institutions. More school consultation and preventive educational services are desired. There is a urgent need of carrying out more empirical studies with strong scientific rigor. Korean Academy should pay attention and provid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child psychiatry service in other countries in Asia.

KEY WORDS :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Child psychiatry training centers · Child psychiatry board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